

ESG 투자 환경 조성

ESG 연구소 신설

삼성증권은 ESG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ESG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ESG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ESG 연구소의 별도 브랜드인 ‘Sustain-wise’를 통해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ESG 리서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및 의견권 자문 등의 경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ESG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경제(Macro), 자산군(Asset Class), 산업(Sector)별 애널리스트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깊이 있는 리포트를 발간 중입니다. 더불어 전문가 초청을 포함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 투자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삼성증권은 ESG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삼성증권의 금융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인식, 평가하여 이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재무 리스크를 넘어 비재무적 요소까지 판단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삼성증권이 추진하는 자기자본 투자 및 증권, 자산의 인수, 금융상품 공급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거래 대상의 사업에서 석탄 채굴 및 발전 관련 매출 비중이 클 경우 내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투자 및 인수, 기타 자금조달 거래 전 스크리닝을 합니다. 거래 담당 부서는 투자 검토 전 단계에서 배포된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사전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ESG 영향도를 검토합니다. 삼성증권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에 석탄 외에도 투자 대상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다양한 환경 이슈(재생에너지, 수자원, 채광, 생물다양성, 삼림, 농업, 교통, 석유 및 천연가스, 원재료 등)를 포함시켜 관련 영향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책임투자

삼성증권은 지속가능한 사회, 함께 성장하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책임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기술금융을 진행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슈와 관련된 산업과 기업,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투자 기업의 성장에 따라 코스닥 상장, M&A, 블록딜 등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 기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며 다수의 책임투자 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책임투자 분야 및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74억 원

지배구조, 책임투자 상품 금액

328억 원

기술금융 투자액

글로벌 투자문화 선도

해외대체투자 활성화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의 대안으로 해외대체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량 대체투자 자산을 소싱하여 초부유층 및 기관 투자자의 투자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체투자를 새롭게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국 런던 Dockland 지역에 오피스 매자닌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Dockland는 런던 3대 오피스 권역 중 하나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는 영국 준정부 기관을 주요 임차인으로 유치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이자 수취가 가능한 총 435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상품입니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기업, 해외 연기금 등과 손잡고 다양한 형태의 대체투자를 시도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투자 경험 기회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해외주식투자 대중화 선도

2020년 특징 중 하나는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하는 고객의 증가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투자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시세와 기업 개요 수준에 머물렀던 투자 정보를 배당, 주주, 경쟁현황 제공 등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은 2021년 해외 리서치 우수 증권사 1위로 선정(조선일보, FN 가이드 공동 주관) 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프리마켓(장전거래) 거래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차 2시간 30분, 2차 5시간 30분으로 확대 운영하여 투자자가 저녁 시간부터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애프터마켓(장후거래) 서비스도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외주식 언택트 컨퍼런스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Live 기능을 이용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해외주식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꾸준히 게시하고 있습니다.